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8월 26일

ISSN 1976-0507 Vol. 3 No. 39

최근 인도 FDI 유입 급등과 시사점

송영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39)

- ▣ 세계경기침체로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하 FDI)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 대한 FDI는 2008년 300억 달러를 넘는 등 2003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음.

 - 세계 FDI가 2008년 약 1조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반면, 인도 FDI는 2008년 33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약 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 이에 따라 인도는 최근 3년간 베트남에 이어 세계에서 FDI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로 부상함.

 - 최근 3년간(2006~08년) 전 세계 FDI는 22.4%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친 반면, 인도 FDI는 약 10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FDI 성장률을 보임.
 - 최근 인도 FDI는 △안정적 고성장과 낙관적인 장기전망 △FDI 대상국으로서 위상 제고 등을 배경으로 급증하여 총고정자본 형성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인도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 인도의 FDI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는 인도의 △민영화 정책 △인프라투자 확대 △금융, 소매업 등의 투자규제 완화 계획 △한-인도 CEPA 체결 등을 적극 활용, 대인도 투자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특히 일본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린필드형 투자뿐만 아니라 M&A형 투자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최근 인도 FDI 동향

- 세계경기침체로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하 FDI)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 대한 FDI는 2008년 300억 달러를 넘는 등 2003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음.
- 세계 FDI는 2008년 약 1조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42% 감소함.
- 반면 인도 FDI는 2008년 330억 달러를 기록, 세계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약 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1. 연도별 세계 FDI 유입 추이



자료: CEIC; UNCTAD.

그림 2. 연도별 인도 FDI 유입 추이



자료: CEIC; 인도중앙은행.

- 특히 인도의 FDI는 2009년 1분기 약 62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지만, 직전분기대비 44% 증가하여 상승세로 반전됨.
- 세계 FDI는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는 물론 직전분기대비 40% 감소하여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3. 분기별 인도 FDI 유입 추이



자료: CEIC; 인도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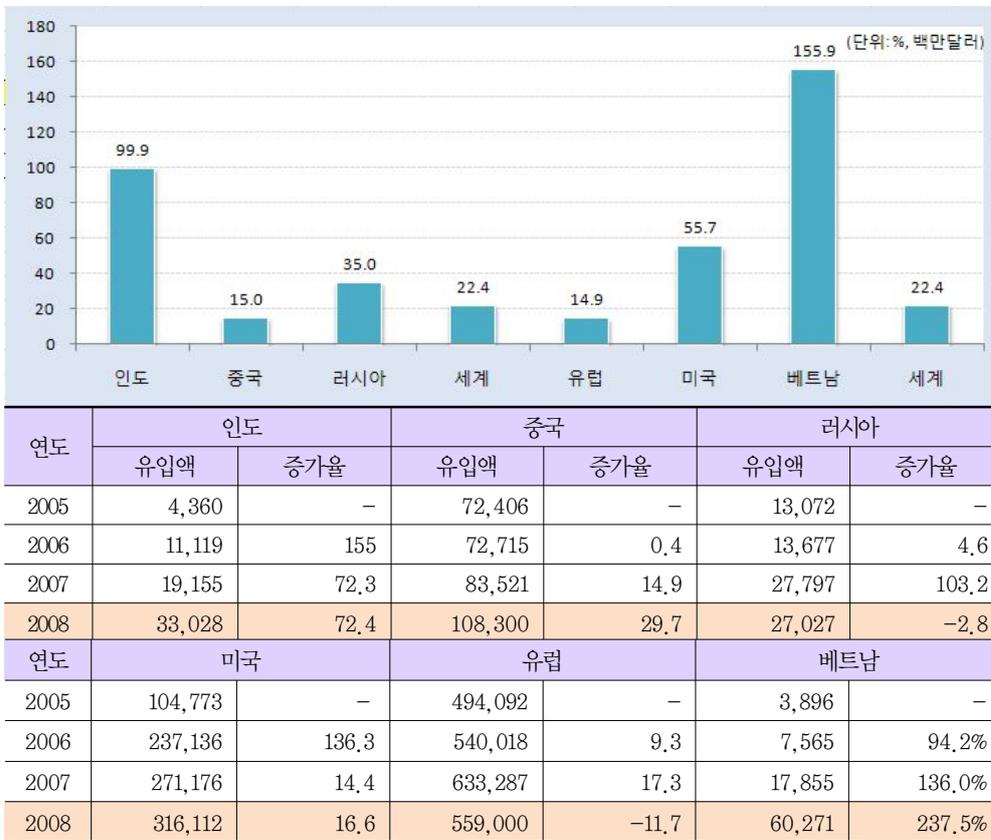
그림 4. 분기별 세계 FDI 유입 추이



자료: CEIC; UNCTAD.

- 이에 따라 인도는 최근 3년간 베트남에 이어 세계에서 FDI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로 부상함.
- 최근 3년간(2006~08년) 전 세계 FDI는 22.4%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친 반면, 인도 FDI는 약 10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FDI 성장률을 보임.
- 한편 세계 FDI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은 2008년 전년대비 -11.7%의 FDI 유입 증가율을 기록,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그림 5. 최근 3년간 국가별 평균 FDI 증가율 추이



주: 1) 국가별 비교를 위해 각국 회계연도가 아닌 단순 연간 유입액을 사용함.
 2) 증가율은 전년대비임.

자료: CEIC;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 세계경기회복과 함께 인도 FDI 증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국가별 FDI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2년 내 (2009~11년) 잠재투자자들이 FDI를 고려하고 있는 유력국가로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높은 34%의 응답률을 얻음.

표 1. 국가별 FDI 전망 조사결과

(단위: %)

순위	국가	UNCTAD 조사에 대한 응답률
1	중국	56
2	미국	47
3	인도	34
4	브라질	25
5	러시아	21
6	영국	18

자료: World Bank, *World Investment Prospect Survey 2001/2011*.

2. 최근 인도 FDI 급등 배경 및 영향

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도성장 시현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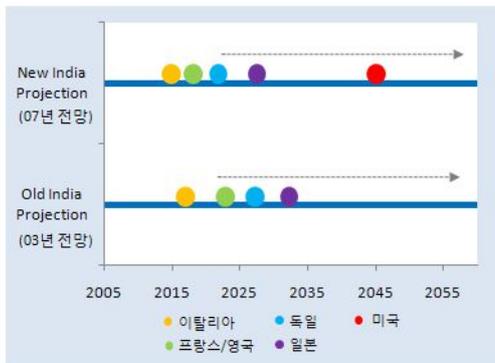
- 2003년 이후 인도는 견고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시현함.
 - 인도는 2004년 농업생산의 급감(0% 성장)으로 7.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매년 최소 8.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
- 골드만삭스 등이 브릭스(BRICs) 중에서도 인도의 장기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연속 발표함.
 - 골드만삭스는 2003년 보고서에서 인도는 2050년까지 5~6%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2030년경 일본의 GDP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가, 2007년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인도의 잠재성장률을 8.4%로 전망하고 일본 추월시기도 2025년경으로 앞당김.

그림 6. 최근 인도 GDP 성장률 추이



주: 인도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률임.
자료: 인도통계청.

그림 7. 인도의 G6 GDP 규모 추월시기 전망



자료: 골드만삭스, *India's Rising Growth Potential 2007*.

나. FDI 대상국으로서 인도의 위상 제고

■ 고도성장과 더불어 FDI 대상국으로서 인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짐.

- AT커니의 “2007 FDI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인도는 2004년 이후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2007년 2.09를 기록, FDI 대상국으로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름.

그림 8. FDI Confidence Index*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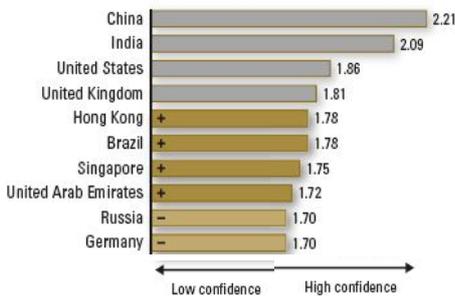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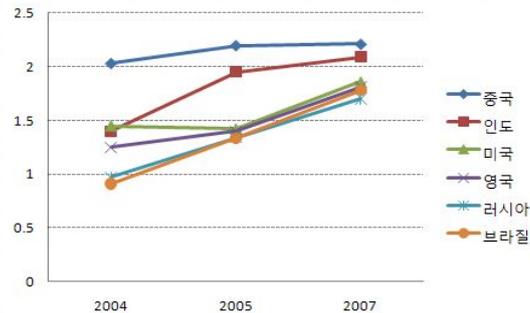


그림 9. 국가별 FDI Confidence Index* 비교



주: * 주요 선대기업 CEO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별 매력도를 평가한 지수.
 자료: AT커니.

다. 총고정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

■ 최근 몇 년간 인도 FDI의 빠른 증가는 총고정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인도가 고성장을 지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함.

- 총고정자본투자 대비 FDI 비중은 2003/04년 2.4%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2년간 10%대를 유지함.
- FDI 증가는 투자, 고용, 수출 등을 유발하여 인도가 고성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0. FDI/총고정자본투자 비중 추이



자료: CEIC; Global insight.

- 인도경제에서 최근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바, 향후 인도의 고성장에 FDI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 2003/04년 GDP 대비 약 24%의 비중을 차지했던 총고정자본 형성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09년 약 35%까지 확대됨.

그림 11. GDP 대비 투자비중 추이



자료: CEIC; Global insight.

3. 전망 및 시사점

- 인도정부는 FDI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이후 인도정부는 FDI 지분규제 완화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금융, 소매업 등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개방 확대는 인도 FDI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최근 주요산업별 FDI 지분규제 완화 내용

연도	분야	주요내용	결과
2008 ~ 2009	항공	- 인도 민간항공사에 대한 외국항공사의 투자허용	검토
		- 부정기항공사(non-scheduled airline)에 대한 투자지분제한을 74%까지 확대	승인
		- 항공 유지·보수 기관 및 항공훈련 기관에 대한 투자지분제한을 100%까지 확대	승인
2009	정유	- 석유정제(PSU)부문에 대한 투자지분제한을 49%까지 허용	승인
	방송	- FM 라디오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제한 확대(20% → 24%) - DTH(Direct To Home, 직접 위성 수신 방식) 등 방송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제한 확대(49% → 74%)	승인

표 2. 계속

연도	분야	주요내용	결과
2008 ~ 2009	광업	- 투자제한 부문이었던 구리, 아연, 니켈, 크롬 등 자본집약적 광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법안 수정 중
		- 티타늄 채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100%)	승인
	부동산	- 호텔, 식당 등 관광시설개발에 대한 최소투자규모 완화 • 최소개발면적을 25에이커에서 10에이커로 축소 • 최소투자자본금 폐지(인도기업과 합작기업일 경우 현 500만 달러)	검토
		- 단일 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투자지분제한 확대(현 51%) - 복수 브랜드 소매업 부문 개방	검토
	금융	- 외국은행의 인도민간은행에 대한 투자지분제한 확대(현 74%)	검토
		- 보험부문(특정부문)에 대한 투자지분제한 확대(26% → 49%)	검토
- 상품거래소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49%까지 투자지분제한 허용		승인	

자료: 보도자료 정리.

- 인도정부는 그동안 FDI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건설 확대 △토지관련 법안 수정 △노동법 개정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인도정부는 지난 7월 신예산안을 통해 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향후 5년간 GDP대비 9%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지난 7월 그동안 토지확보 문제로 지역 농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 관련 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현 UPA 정권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경제개혁 100일 청사진」 주요내용에 노동법수정 계획을 포함시켰으며, 지난 연립정권에서 이에 반대하였던 좌파세력과의 정치적 분리로 개혁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어 정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인도의 민영화 정책 △인프라투자 확대 △금융, 소매업 등의 투자규제 완화 계획 △한-인 CEPA 체결 등을 활용, 대인도 투자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재정적자 회복을 위한 인도정부의 지분매각 형태의 민영화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금융, 조선, 전력, 자원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유력시되고 있으며 총 지분매각규모는 약 80~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도정부가 전력, 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대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경쟁과 진출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음.

- 이번 한-인도 CEPA 체결로 외국인투자로서 내국민대우(NT),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에 대한 제한 및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도입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만큼 특히 중소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및 일본의 대인도 FDI와 비교해 볼 때 인도 전체 FD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2000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싱가포르와 일본의 대인도 FDI 누적금액은 각각 80억, 28억 달러로서, 이는 인도 전체 FDI 대비 각각 9.99%, 3.25%에 이르는 비중임.
- 이에 반해, 한국의 대인도 FDI 누적금액은 약 4억 7,000만 달러로 인도 전체 FDI 대비 0.52%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침(한국의 최근 대인도 FDI 동향은 부록을 참고).

표 3. 국가별 대인도 FDI 유입 순위 현황

순위	국가	FDI 누적 유입액(\$mn)	비중(%)
1	모리셔스	39,379.00	44.43
2	싱가포르	8,070.74	8.99
3	미국	6,508.23	7.37
4	영국	5,289.09	5.94
5	네덜란드	3,700.72	4.19
6	일본	2,834.26	3.25
7	키프로스	2,579.22	2.96
8	독일	2,378.16	2.68
9	프랑스	1,233.34	1.41
10	아랍에미리트	994.87	1.12
11	스위스	858.03	0.98
12	이탈리아	641.45	0.70
13	케이맨제도	658.19	0.69
14	스웨덴	515.54	0.58
15	버뮤다	488.86	0.56
16	한국(남한)	467.03	0.52
1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59.06	0.51
18	스페인	445.74	0.49
19	홍콩	431.89	0.49
20	러시아	366.02	0.45

주: 2000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누적금액 및 비중임.

자료: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또한 M&A를 통한 대인도 투자 진출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계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인도 M&A 투자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향후 경기회복 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대인도 M&A 금액 및 투자건수는 각각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125억 달러, 81건을 기록하는 데 그쳤으나, 전 세계 대비 인도 M&A의 비중은 오히려 전년대비 0.2% 증가한 1.2%로 확대됨.

그림 12. 인도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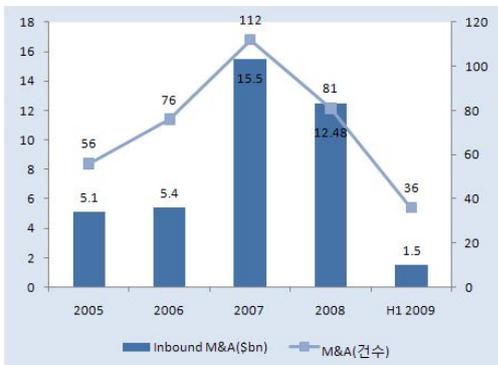


그림 13. 세계 M&A 대비 인도의 비중



자료: UNCTAD; Grant Thornton Dealtracker.

- 일본은 2008년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M&A 체결에 성공하는 등 대인도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및 서구에 비해 대인도 M&A형 투자진출이 미진한 상태임.

표 4. 일본의 대인도 M&A 사례(10억 달러 이상)

인수자	인수대상	분야	인수규모(백만 달러)	거래형태
Daiichi Sankyo	Ranbaxy Lab	제약, 건강&바이오	2,400	34.8% 지분인수

주: 2008년 발표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M&A임.
 자료: Grant Thornto Dealtracker.

<부록>

한국의 대인도 FDI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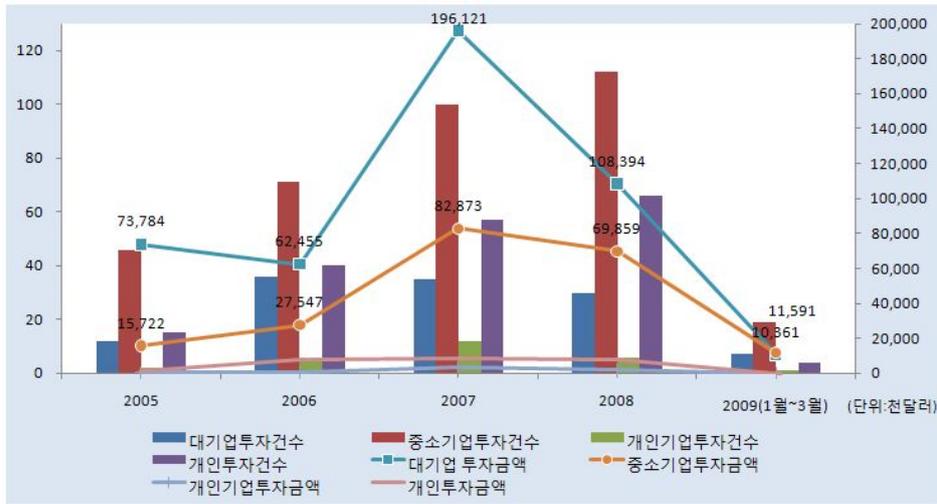
- 2008년과 2009년 1분기 한국의 대인도 투자규모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
 - 2008년 한국의 대인도 FDI 규모는 전년대비 약 35% 감소한 1억 8,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2009년 1분기 역시 전년동기대비 약 75% 감소한 2,2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7년 이후 대인도 FDI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감.
 - 2008년 대인도 투자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FDI 규모의 감소로 건당 FDI 금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1분기 투자건수(31건) 역시 전년동기대비(52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급격히 위축됨.
 - 2008년 대기업의 투자건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0건에 머물렀으며, 투자금액 역시 전년대비 약 45% 감소한 1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2008년 중소기업의 투자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약 15% 감소한 6,990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쳐 건당 투자금액은 크게 감소함.
 - 2009년 1~3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건수는 각각 전년 동 기간 투자건수(10건, 22건)에 못 미치는 7건, 9건에 그쳤으며, 투자금액은 약 74, 70% 감소한 1,000만, 1,1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부록그림 1. 한국의 대인도 FDI 추이



주: 인도 FDI 유입 대비 한국의 비중은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 인도 회계연도가 아닌 단순 연간 집계를 활용한 자료: CEIC; 한국수출입은행.

부록그림 2. 한국의 대인도 투자자 규모별 FDI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